

수완·진월 버스 2개 노선 신설

광주 시내버스 31개 노선 조정… 30일부터 시행

출퇴근 이용자 많은 곳 중형버스 20대 추가 배치

광주시는 오는 30일부터 신규 택지 개발지구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버스노선을 신설하고, 일부 불합리 노선을 보완하는 등 시내버스 노선 조정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

광주시는 25일 “수완지구와 진월지구를 통행하는 2개 노선을 신설하고 직선화 7개, 단축 3개, 경로변경 10개, 분리 2개, 연장 4개, 폐지·통합 3개 노선 등 29개 노선을 조정하는 등 31개 노선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시 외곽 택지개발지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수완지구에는 수완11번(수완지구~하남도시공사아파트~송정나들목~광주송정역~도산동)이, 진월지구에는 진월75번(노대~송화마을~진월대주~원광대한병원원~마재우체국~서광주역) 등이 각각 신설됐다.

장거리 노선인 첨단30번(첨단~송암공단)은 첨단30번(첨단~광천동)과 송암31번(양동시장~송암공단)으로, 지원152번(능주~진흥고)은 수완12번(수완지구~증심사)과 지원152번(광주역~능주)으로 분리된다.

13개 노선에 대해서는 지하철역을 경유하도록 해 대중교통 간 환승체계도 강화했다. 또 양동시장 등 전통시장을 경유하는 7개 노선을 연장하거나 경로를 바꿔 시장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 11월 광주시내버스 노선조정 TF팀과 자문단을 구성해 노선 조정안을 마련하고, 5개 자치구 시민 공청회와 상무지구 등 공청회를 열어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근 버스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한 바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25일 오전 광주지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8회 법의 날’ 기념식 행사에서 성영훈(오른쪽) 광주지검장이 반정모 법무부범죄예방위원에게 법무부장관 표창을 전달하고 있다.

“법질서 확립·엄정 집행 다짐”

‘제48회 법의 날’ 기념식

비롯, 총 19명에 대해 표창이 주어졌다.

법조계가 25일 ‘제48회 법의 날’을 맞아 기념식 행사를 갖고 ‘법 질서 확립’과 ‘엄정한 법집행’을 다짐했다.

25일 광주지방검찰청(지검장 성영훈)은 지검 9층 대회의실에서 심상철 광주지법원장, 강행우 광주지방변호사회장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의 날’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반정모 법무부법죄예방위원이 법질서 확립 유공자로 선정돼 법무부장관 표창을 받은 것을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호남지역 오늘 최고 40mm 황사비

원한 황사가 26일 우리나라 상공을 통과하기 때문에 비에 황사가 섞여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기상청 관계자는 전했다.

26일 예상 강수량은 10~40mm, 이날 오후 늦게나 밤에 비가 그친 뒤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옅은 황사는 예상된다. 27일에도 오전 한때 산발적으로 비가 내린 뒤 그치겠으며, 오는 30일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의사 휴대전화서 슈퍼박테리아 검출

“만성질환자 감염땐 혈관·폐 등에 치명적”

의료진이 사용하는 휴대전화가 슈퍼박테리아로 불리는 ‘다제내성균’은 물론 각종 병원균에 오염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대한병원감염관리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료진의 휴대전화에서 분리된 의료관련 감염 병원균)에 따르면 의료진 101명의 휴대전화에서 검체를 채취해 배양 검사를 한 결과, 4개의 휴대전화에서 슈퍼박테리아로 불리는 MRSA(메티실린 내성 포도

상구균)가 검출됐다.

검출된 균을 전체적으로 보면 식중독을 일으키는 포도상구균이 13개(MRSA 4개 포함) 휴대전화에서 나왔다. 이 중에서도 다제내성균인 ‘MRSA’의 경우 만성질환자에게 감염되면 혈관, 폐, 수술부위 등에 심각한 2차 감염을 일으켜 생명이 위협해질 수도 있다.

또 면역력이 떨어진 환자에게 감염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코아콜라제-

온성 포도구균(CoNS, 메티실린 내성균 38개 포함)이 61개 휴대전화에서 확인됐다.

/연합뉴스

광주·전남·북지역은 26일 곳에 따라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겠다. 이번 비에는 황사가 섞여 내릴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광주지방기상청과 전주기상대는

“중국 산동반도 부근에서 동진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허리고비(강수확률 60~90%)가 내리다가, 오후 늦게 서해안부터 점차 그치겠다”고 25일 예보했다.

또 황토고원과 내몽골고원에서 발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롭 05시 48분 해침 19시 13분

달롭 01시 52분 달침 12시 58분

매서운 바람

비는 오후 늦게 서해안부터 점차 그치겠다.

광주	흐리고비	13/17°C
목포	흐리고비	12/17°C
여수	흐리고비	12/17°C
나주	흐리고비	13/17°C
완도	흐리고비	13/18°C
구례	흐리고비	12/18°C
해남	흐리고비	13/18°C
장흥	흐리고비	13/18°C
순천	흐리고비	13/18°C
영광	흐리고비	13/17°C
전도	흐리고비	13/17°C
전주	흐리고비	13/17°C
군산	흐리고비	11/16°C
남원	흐리고비	11/15°C
흑산도	흐리고비	11/15°C

〈오전〉 비다 풍향 파고 자외선지수 식중독지수 꽃기루지수

서해 남부 일비다	남서~서	2.0~3.0m	파고	밀물
남서~서	남비다	2.0~4.0m	밀물	썰물
남해 서부 일비다	남서~서	2.0~3.0m	밀물	썰물
남비다	남~남서	2.0~4.0m	밀물	썰물
남해 서부 일비다	남서~서	2.0~4.0m	여수	10:41
남비다	남서~서	2.0~4.0m	여수	16:37

◇주간날씨

날짜	27(수)	28(목)	29(금)	30(토)	5/1(일)	2(월)
날씨	비	비	비	비	비	비
최저/최고	10/16	8/17	8/21	9/20	13/17	7/20

국립공원의 야생화

만주서 최초 발견… 전남권서도 자생

(5) 만주바람꽃



‘만주바람꽃’은 20cm 정도로 자라는 여러해살이풀로 덩이뿌리가 달린 꽃속줄기 끝에서 잎과 줄기가 나온다. 꽃잎은 꽃받침과 수술사이에 꽃잎으로 형태로 세워져 있다.

만주에서 최초로 발견돼 ‘만주바람꽃’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지만, 엄밀히 말하면 바람꽃속(Anemone) 식물은 아니다. 우리

나라 ‘나도바람꽃’과 많이 닮았다. 1974년 한국 미기록종으로 발표됐으나, 현재는 전남권에서도 볼 수 있다.

〈국제보청기〉 서울 종로점 4월5일 개점했습니다!

본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서울 종로점을 4월5일 개점했습니다!
지방에서 보청기 사용중
불편사항을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순천점 061-752-9940
전라남도 순천시 영동 32-5 (중앙시장 앞)
목포점 061-262-9200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 매우 잘 들립니다.

* 안보입니다.

* 가격이 맘에 듭니다.



www.kjhr.com

국제보청기

서울 종로점을 4월5일 개점했습니다!

지방에서 보청기 사용중
불편사항을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특허청 서비스표등록 제41-0187289

DAZN NAVER 아이엘리시아 검색

아이부터 어른까지 3대가 만족하는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고객님의 소중한 추억과 맛있는 행복을 약속합니다.

대·소모임 가능한 500석 완비!

150석, 92석, 52석, 32석, 24석, 12석의 다양한 룸구성으로 쾌적하고 아늑하게 모시겠습니다.

평일	영업 시간	인원	취학여린이 (초등학생)	미취학여린이 (5세~7세)
LUNCH	11:30~15:30	25,000원	12,000원	8,000원
DINNER	16:00~22:00	31,000원	18,000원	12,000원

* 어린이 요금은 의료보험증 등을 지참하시어 할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062)671-1199

유스퀘어 터미널 2층 CGV 옆



古家 고가약오리탕

약탕기 홍삼 삼계탕

4월1일 개시

1인분 13,000원

홍삼은? 한의학적으로 가장 오랜 약용 역사와 가치를 지니고 있는 우수한 건강 보조식품입니다.

*주차장 및 계모임, 단체모임 가능한 연회석 완비

고가약오리탕
약탕기 홍삼 삼계탕